스트레스를 국가가 관리한다고요?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기업생산성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일 ·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Q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에게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하던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노동부는 지난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을 시작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와 (사)한국EAP협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EAP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만 도입돼 있으나,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알코올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근로자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입됐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EAP는 직원의 사기증진(68%), 생산성 향상(62%), 결근 감소(59%)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선정된 두 기관을 통해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희망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관련 상담서비스는 직무관련 상담, 일 · 가정양립 관련 상담, 일반상담 등입니다.

직무관련 상담은 고충상담, 직무스트레스관리, 리더십 · 대화 · 갈등관리, 성차별 및 성희롱 상담, 조직변화 관리 및 대처 등이며 일 · 가정양립 관련 상담은 자녀보육 및 부모봉양, 경력(교육)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상담은 약물남용 관련 상담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8개 주요 국가산단에 개소한 센터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경력개발, 약물중독 등 개인분야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 가족분야 △직무스트레스, 업무성과 등 직장분야 △법률 · 재무 · 의료 컨설팅 등 기타분야의 4개 분야입니다.

이번 서울, 안산, 인천, 천안, 광주, 구미, 창원, 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단 11개소에 '희망나눔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300인 이하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들은 3월말까지 계획된 시범 기간 동안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입주 기업이나 기관은 인터넷(hieap.net)에서 이용 고객사로 등록 후 유선(콜센터 대표전화 1566-5228), 온라인(hieap.net) 및 1:1 대면 전문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희망나눔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paran.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